

2017 전주한지문화축제 폐막... 축제 현장 돌아보니

기대감은 컸으나 운영은 "글썩요~"

한지패션대전, 무대 조명등
전원 나가 패션쇼 40분 지연

국카스텐 공연서 무대 책임자
음향장비 준비 소홀로 차질 빚어

코스튬플레이 패션쇼 출연자들
열악한 대기환경에 '눈살'

한지산업관은 부스 나열에만 그쳐



전주한지문화축제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됐다. 사진은 지난 19일 열린 개막식에서 이남호 한지문화축제 조직위원장과 김승수 전주시장, 조봉성 전주매일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는 모습.

'전주한지, 온누리에 펼치다'를 주제로 지난 19일 개막된 전주한지문화축제가 21일 막을 내렸다.

이번 축제에선 한지패션대전과 한지에술대전 등 한지발전을 향한 기대가 쏠린 행사들이 진행됐다. 하지만 무대행사와 관련해 해선 운영상의 매끄럽지 못한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지한복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세련된 패션작품을 선보인 '2017 전주한지패션대전'은 한지의상의 대중화·산업화를 엿볼 수 있는 무대로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

켰다. 하지만 무대의 조명등 전원이 나가는 바람에 패션쇼가 40여 분간 지연되는 촌극이 연출됐다.

이와 함께 국카스텐의 공연은 음향 무대 총괄책임자의 음향장비 준비 소홀로 차질

을 빚었다. 당초 6곡을 노래할 예정이었으나 무대 상황이 여의치 않아 2곡만을 불러 장시간 기다린 관람객들에게 허탈감을 안겼다.

또한 전당 1층 화장실에 자리하고 있던 '한지코스튬플레이 패션쇼 무대' 출연자들의 열악한 대기 환경은 안쓰러움과 동시에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이들은 변변한 의자도 없이 맨땅에 앉았거나 누워서 리허설과 본공연의 무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광주, 군산 등에서 온 출연진은 오전 9시부터 줄곧 그곳에서 대기하며 식사를 해결하고 휴식을 취했다.

또 하필 이들의 대기실 겸 탈의실로 사용된 공간은 한지에술대전 전시장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다.

올해 23번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한지에술대전'은 한지미술부분을 추가해 한지공예와 한지미술 분야를 아우르는 공모전을 펼쳤다. 대상도 국회의장 상으로 격상, 전국 각지에서 고르게 수준 있는 작품들이 다수 출품됐다.

찬란한지트리는 조형물로서의 매력을 발산하지 못한 채 낮엔 덩그러니 위치해 있다가 밤에만 빛을 발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관람객들이 한지와 쉽게 어울릴 수 있도록 마련한 23개 체험행사장에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간간히 이어졌으나 그 수요가 그다지 많지 않았었다. 토요일 오후 6시 무렵, 3분의 1도 팔리지 않은 티켓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다.

한지산업관은 부스 나열에 그쳐 보였다. 한지 노트·수첩·벽지·장판·부채·액세서리 등 흔하디 흔한 상품들로 채워졌을 뿐 조직위가 주창하는 '산업화 및 세계화에 견줄 만한 획기적인 상품은 눈에 띄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도내지역 업체들의 참여도 저조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한지문화축제는 전주전통한지의 세계화·산업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올해 열린 축제의 성과를 분석해 내년에는 좀 더 즐겁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축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지코스튬플레이 패션쇼 무대



이번주 문화다양성 확장 나선다

전북문화관광재단, 무지개다리 사업 운영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은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전국공모사업명)을 운영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무지개다리 사업은 올해 1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모를 통해 확보한 5800만 원과 도비 700만 원을 포함한 총 6500만 원의 사업비로 진행된다.

'문화다양성 청춘극장'이라는 재단의 사업명으로 운영될 올해 무지개다리 사업은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시작된다. 문화다양성 주간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매년 5월 21일부터 5월 27일로 지정되었다.

재단은 이번 문화다양성 주간의 행사주제를 '차이를 즐기자'를 즐기는 우리의 방식'으로 정하고, 정책포럼과 지역협력프로그램을 통해 전북지역의 문화다양성을 알리는데 주력한다.

오는 25일 10시에는 '전북 문화다양성,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전북예술회관에서 정책포럼이 열린다.

유대수 문화연구원 창 이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포럼은 '우리나라 문화다양성 개념과 시각'이라는 주제로 아시아문화인 권연대 이만 대표가, '전북 문화다양성 기반 마련 위한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로 전북연구원 장세길 연구위원이, '전북 문화다양성 사례와 현장'이라는 주제로 문운걸 예원예술대 문화영상장학대학원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는다. 대인예술 시장 총감독인 전교필,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김경례, 고창농촌관광 팜팜사업단 사무국장 김은미 씨가 토론자로 나선다.

지역협력프로그램의 경우 군산·정읍·완주의 특성을 살린 특화 체험프로그램이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군산 은과유원지(오전 10시)에서는 문화다양성 캠페인·국기 퍼즐 만들기·한지로 등불 만들기 체험이, 정읍 무성서원(오전 10시)에서는 결혼이주 여성과 가족을 상대로 전통예절·다례 및 선비놀이 체험이, 완주 삼례문화예술촌(오후 2시)에서는 이주노동자·유학생·결혼이주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팝업북+워크북 체험이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전북고교생백일장 장원

'운문' 익산 원광여고 이소연

'산문' 에 전북여고 고예림

제21회 전북고교생백일장이 지난 20일 전북대 인문관에서 열렸다.

도내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분야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열리는 백일장은 재단법인 목정문화재단(대표이사 김홍식)이 주최하고, (사)한국문인협회 전북지회(회장 안도)와 (사)한국작가회의 전북지회(회장 김병용)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전북도교육청이 후원했다.

운문 '점(點)' 산문 '선(線)'이라는 시제로 열린 이번 백일장에는 32개교 513명이 참가했다.

심사결과 운문부 장원은 익산 원광여자고등학교 이소연이, 산문부 장원은 전북여자고등학교 고예림 학생이 뽑혀 상장과 1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또한 100만원의 도서상품권이 주어지는 우수학교상에는 익산 원광여자고등학교와 전북여자고등학교가 각각 차지했다.

/*정해은 기자

무주산골영화제 프로그램 이벤트 참석자 공개

'관객들과의 소통'에 초점

관객과의 대화 · 산골토크 등 27회 진행
배우 이이경 · 김새벽 · 기주봉 등 참석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 깊은 감동과 울림을 안겨줄 제5회 무주산골영화제의 프로그램 이벤트 및 참석자가 공개되었다.

올해에는 작년보다 늘어난 총 27회의 관객과의 대화 및 무대인사와 무주산골영화제만의 영화 토크 프로그램인 산골토크가 진행된다. 특히, 총 21편의 한국영화 중 17편의 한국영화 상영작에 참여한 40여 명의 감독 및 배우들이 관객과 만나기 위해 대거 무주를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져 제5회 무주산골영화제에 대한 기대를 한껏 높이고 있다.

영화 <아기와 나>의 이이경과 정연주, <초행>의 배우 김새벽, <폭력의 씨앗>의 김소이, <재꽃>의 정하담과 박현영, <우리들의 아역배우 최수인>과 설해인, <메

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 배우 기주봉과 고원희 등 약 30명의 주, 조연배우들이 관객과의 대화 및 무대인사에 대거 참여한다.

아울러, <초행>의 김대환, <춘천, 춘천>의 장우진, <재꽃>의 박석영, <공동정범>의 김일란, 이혁상 등 한국장편경쟁부문 '장' 색션에서 상영되는 9편의 상영작 감

독 전원이 관객과의 대화에 참석할 예정이며, <비밀은 없다>의 이경미 감독과 <우리들의 운가은 감독 등 '관' 색션에 상영되는 4편의 한국영화 상영작의 감독들 또한 무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플릿>의 최국희 감독, <카트>의 부지영 감독, <할머니의 먼 집>의 이소연 감독 등이 영화 상영 전 무대 인사를 통

해 관객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무주산골영화제만의 특색 있는 영화 토크 프로그램, '산골토크'가 올해 9회 진행된다. 제3회 무주산골영화제 한국장편영화경쟁부문 심사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허문영 평론가를 비롯하여 한창호, 김성욱, 장한석, 이용철 평론가 등 한국을 대표하는 주요 영화평론가들이 참여하여, 관객들에게 영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해줄 것이다.

초록빛 자연 속, 감독과 배우 등 다양한 영화인과 관객이 마주할 제5회 무주산골영화제는 무주군 일대에서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무주=전문선기자

ECO융합섬유연구원

2017년 4~6월 복합섬유소재관련 기업 재직자 교육

"에코융합섬유연구원(Korea Institute of Convergence Textile)은 섬유패션산업의 기술혁신과 소재개혁을 선도하여 미래를 준비해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 생산기술연구소입니다."

기술개발 및 사업분석

- 시제품 생산
- 기술, 정보제공
- 디자인

**연구원
주요
사업**

전문인력 양성

- 창업기업지원
- 지식재산권
- 연구용역 수행

CEO 및 재직자 교육 안내

일시	기술역량강화세미나 : 재직자 대상
4월 18일	하이브리드 복합 섬유소재 열가공 기술동향
5월 2일	3D프린팅기술을 활용한 제품개발 방안
일시	생산/연구장비 활용 실습교육 : 재직자 대상
4월 19일 ~ 21일	화학적 분석장비(SEM-EDX, GC/MS 등)
5월 17일 ~ 19일	물리적 분석장비(균제도, 태, 인장강도, SEM 등)
일시	기업기술경영 역량강화교육 : CEO 및 관리자 대상
4월 25일 ~ 26일	글로벌 시장 대응형 경영혁신
5월 23일 ~ 24일	섬유제품 생산관리

※ 상기 교육은 기업 상황에 따라 상세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교육문의 및 신청 : Tel. 063) 830 - 3576 E-mail : sulhwa9280@kictex.re.kr

※ 본 교육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주요산업육성사업 복합섬유소재산업 역량강화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전라북도 | ECO융합섬유연구원